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7년 12월 26일

| 금주의 이슈 |

I. 중국의 굴욕적인 'Dog House Approach' 외교행태 / 1

II. 늘어나는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 6

금주의 이슈

- ❖ 금주(12월 넷째주)는 안보 및 사회 분야에 관한 2편의 이슈를 다루었음. 제1편에서는 한중정상회담(12.13~16)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진단해보았으며, 제2편에서는 주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 살펴보았음
- ❖ 제1편 : 중국의 굴욕적인 ‘Dog House Approach’ 외교행태

 -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對中 저자세·굴욕·홀대 외교라는 외교 참사로 마감됐으며, 특히 중국의 對韓 ‘dog house approach’ 행태, 곧 ‘한국 길들이기’ 외교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회담임
 - ‘4대 원칙’ 등 회담결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방중 정상회담을 추진한 조직과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 기자폭행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 및 책임자 처벌, 한중정상회담 성과 과시를 위해 청와대의 사드 봉합이라는 我田引水식 해석 등에 대한 근거를 소상히 밝혀야 함
- ❖ 제2편 : 늘어나는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는 개인, 부모,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특히 보호자의 양육기술 미숙 및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와 교사 등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2017. 12. 26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I. 중국의 굴욕적인 ‘Dog House Approach’ 외교행태

작성: 안보통일센터 ☎ 02-6288-0547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對中 저자세 외교, 굴욕외교, 흘대외교라는 외교 참사로 마감됐으며, 특히 중국의 對韓 ‘dog house approach’ 행태, 곧 ‘한국 길들이기’ 외교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회담으로 평가. 따라서 ‘4대 원칙’과 같은 회담 결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방중 정상회담을 추진한 조직과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 기자폭행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 및 책임자 처벌, 한중 정상회담 성과 과시를 위해 청와대의 사드 봉합이라는 我田引水식 해석과 年평균 경제성장률 0.2%라는 甘言利說에 대한 근거를 소상히 밝혀야 함

1. 한중정상회담 종합 평가

-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우리의 對中 저자세 외교, 굴욕외교, 흘대외교의 종합판
- 한·중 경제무역 부처 재가동 선언, 한·중 정상간 핫라인 구축 등이 성과라고 청와대·정부·민주당 스스로 자평함에도, 그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국빈 방문으로서는 성과가 매우 초라함
- 특히 중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의 품격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동과 ‘한국 길들이기’ 중국외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2. 세부 평가

- 양 정상간 합의한 ‘4대 원칙’은 중국의 기존 입장 반복에 불과하며, 오히려 한미관계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음
 - 청와대가 성과로 강조한 ①한반도 전쟁 不容, ②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③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④남북관계 개선 등의 ‘4대 원칙’은 성과라기보다는 문제의 촉발
 - 無戰, 無亂, 無核은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 오던 것, 이번에 남북관계 개선을 첨가했다고 하나 이 또한 중국의 책임과 의무가 빠져 있음
 - 더구나,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데 그에 대한 중국의 방법론적 지지와 협조가 없는 ‘레토릭’ 합의에 불과
 - 특히, ‘전쟁 불용’은 현재 미국이 對北 예방타격을 옵션으로 활용하며 對美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한·미 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우려
 - 또한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도달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의 옵션(조건부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핵주권 확보 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 초래

○ 국민 방문이 무색할 정도로 국제규범에 어긋난 국민 영접 논란

- 홀대외교는 첫날 차관보급의 공항 영접부터 시작되는데, 청와대는 우다웨이의 공식으로 궁궐안유 부장조리가 차관 대행이라고 변명

※ 2013년 박대통령 방중時 수석 차관이 나왔고, 특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문 때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

-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이 무산되는 등 석연찮은 일정 변경 및 혼밥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구차한 변명 등으로 보아, 이번 방중은 국민 방문이기보다는 부부여행이라는 냉소적 평가

-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간 공동성명은 물론 공동언론 발표문조차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는 23년만에 처음

○ 기자 집단폭행사건

-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를 집단폭행한 사건은 외교관례상으로도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 손상 뿐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反中 분위기 확산까지 우려됨

- 현재 코트라 측이 중국 공안에 CCTV 영상을 요구했으나 중국 공안은 응하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가 진상 규명 요구와 수사 및 조속한 해결 등을 촉구했다고 하나, 이는 정부의 면피용 제스처로 보임

- 이번 사건은 중국의 오만과 前근대적 국가시스템이 1차적 원인이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조급증, 그리고 외교라인 전체의 미숙함과 對中 저자세 외교가 자초한 측면이 더욱 크다는 평가

○ 사드의 미완적 해결과 북핵문제의 원론적 수준의 언급 반복

- 사드와 관련한 시주석의 원론적 언급과 심지어 장더장 총리의 사드의 단계적 철회 언급에도 청와대는 ‘봉합’ 됐다는 我田引水식 주장을 넘어 내년 경제성장률 0.2% 상승할 것이라는 甘言利說을 펴고 있음
- 또한, 현 동북아 안보질서 파괴의 핵심 근원이 북한인데도 북핵 해법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하고 넘어감

3.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이번 정상회담에서 명확해진 것은 중국이 ‘도그 하우스 어프로치’ (dog house app.), 즉 ‘한국 길들이기’ 외교를 하고 있음이 분명

- 영국 ‘Economist’ 는 현재 중국이 한국을 “사드문제로 한참 가두고 있다가 풀어주자 그동안 간혀 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며, 목줄로 묶어 조였다 풀었다 하는 식의 ‘한국 길들이기 외교’ 로 평가
- 현재 중국이 그나마 우리를 덜 홀대하는 이유는 한미동맹 때문인데,

우리는 전략적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 따라서 25년 전에 새로 맺은 친구(한중수교)도 중요하지만, 70년 이상 유지해 온 혈맹(한미동맹)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잊으면 안됨

○ 방중외교를 담당하 조직과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 홀대 외교를 자초하고 對中 저자세 외교로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 기차 집단폭행사건에 대해 중국에 강력 항의하고 그 전말을 명확히 밝혀 양국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 또한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를 부풀리고 과시하기 위해 사드로 인한 1일 피해액이 300억 달러, 연평균 경제성장률 0.2%라고 언급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그 근거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함

II. 늘어나는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 02-6288-0528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는 개인, 부모,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특히 보호자의 양육기술 미숙 및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와 교사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최근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두 배(2012년 66.1건 → 2015년 130.7건) 가까이 증가함
 - 특히 영유아는 학대에 노출되어도 표현능력이 낮고 대처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위험이 높음
-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제도가 부족하고,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면이 있음

2. 아동학대 현황 및 원인

□ 아동학대의 현황

○ 아동학대 중 영유아 학대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5년 아동학대로 확인된 11,715건 중 1세 미만은 2.9%, 1-3세는 11.2%, 4-6세는 14.4%로 영유아기 학대 비율이 28.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연령별 아동학대 건수

단위: 건(%)

구분	1세 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건수	344	1,312	1,683	2,123	2,289	2,600	1,364	11,715
(%)	2.9	11.2	14.4	18.1	19.5	22.2	11.6	1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방임의 비율은 적어지나,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증가하는 양상

- 1세 미만 아동의 학대 유형은 방임이 54.5%로 과반수였으며, 1-3세 및 4-6세의 경우 정서학대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유형별 아동학대 비율

단위:건(%)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 미만	68(16.4)	121(29.2)	0(0)	226(54.5)	415(100)
1-3세	564(30.5)	750(40.5)	6(0.3)	530(28.6)	1,850(100)
4-6세	877(35.3)	1,054(42.2)	29(1.2)	524(21.1)	2,484(100)
7-9세	1,171(37.1)	1,241(39.3)	78(2.5)	668(21.2)	3,158(100)
10-12세	1,319(38.2)	1,401(40.6)	140(4.1)	594(17.2)	3,454(100)
13-15세	1,738(41.7)	1,737(41.7)	234(5.6)	455(10.9)	4,164(100)
16-17세	924(43.2)	893(41.8)	142(6.6)	178(8.3)	2,137(100)

자료: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아동학대의 원인

- 아동학대에는 개인, 부모,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 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7.31.)
 - 또한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에서 빈곤, 가정의 갈등적 구조, 부모의 음주 등은 일관되게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보고됨

[표] 아동학대 주요 원인

단위:건(%)

아동학대 주요 원인	2014년	
	건수	비율
양육기술 미숙	10,076	33.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6,200	20.4
부부 및 가족 갈등	3,050	10.0
성격 및 기질 문제	2,134	7.0
중독 문제	2,026	6.7
기타	6,968	22.8
계	30,454	100

자료: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7.31.).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먼저 찾아서 가능한 요인을 제거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정책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 부모 지원 측면

○ 부모 교육 의무화

- 예비부모가 임신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때 1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부모가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을 때 2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육아스트레스나 가족 갈등을 경험하였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새로운 육아지원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서비스를 부모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함

○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 사회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생계형 맞벌이 부모들에 대한 특별한 사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 교사 지원 측면

○ 현직교사 교육 강화

- 교사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행동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 예비교사 선발 시 인성검사를 필수로 하고, 교사양성교육과정 중에 예비교사의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는 감정노동을 하는 직무에 종사하므로 교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TEL : 02. 3786. 3800 E-mail : ydi@ydiins.or.kr Website : www.ydi.or.kr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